: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2회〉

이긴자 일대기

이스라엘 백성은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말을 배척한다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남기시고 환원하셨을까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지난호에 이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되니까 저절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겨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몸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몸인고로 하나님이 된 자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자에게는 '나'라는 개체의식이 틈을 탈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기에, 그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으며 또한 '나'라는 개체의식이 없으므로 욕심이 나오지 아니하고 피가 썩지 않는 생활을 온전히 행한다가 되는고로 영생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는 비합리적인 마귀의 학문을 논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학문을 과학적으로 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가 이 세상에는 한 번도 존재해 본 역사가 없다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교는 신학을 논하는 것이요 신(神)에 대한 학문을 논하는 것입니다. 가령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 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덮어놓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사람의 생각에 의한 인학(人學)을 논하는 것이지 진리구현의 종교에 부응하는 신학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본래 신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신이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다는 말씀이 거짓이 아닌 참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그의 교활한 지혜를 총동원하여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날조된 유언비어를 조장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에게는 자식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들을 수천년 동안 세뇌시켜 왔던 것입니다.

속임수에 능한 마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 뱀과 같은 지혜를 써서 예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말을 하게끔 조종하였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마귀의 노림수가 숨어 있으며 그 노림수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만 알았지 예수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인간 죄인의 한정된 생각까지도 계산한 그런 술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왔으며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긍지를 갖지 못하게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라(요3:5)"는 말씀 속에는 전에 너희가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임으로 사람더러 다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더러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 잘못된 말이며 구약성경 창세기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한다"라는 구절과도 짝이 맞지 아니하고 위배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니라'라는 말씀과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니라'라는 말씀을 보아도 독생자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했다고 영국 법정에서 판결함으로 유럽 일대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술집이나 디스코텍 또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기독교가 존속하여 재림 불가능한 예수를 붙잡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목사들과 신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물의를 일삼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 "이 미친놈의 새끼야, 성경도 모르고 왜 무식한 소리를 하느냐? 성경에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씌어 있는데 왜 너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런 거짓말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하고서 돌을 던져서 친 것입니다. 그걸 갔다가 예수는 뭐라고 변명을 했냐 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역사가 진정한 종교 역사

또 한편으로 종교는 낙원이 되는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인데 낙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종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 낙원이 되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기록된 말씀을 서로 짝을 맞추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천국이 회복되는 고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 역사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역사가 진정한 종교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참 종교요 또한 종교는 진리구현이거늘 진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인고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나 존재하는 것이지 죄인이 되는 사람 속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속에는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종교는 의인 안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인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하였으므로 의인이 없었다면 종교는 하나도 없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 자체가 하나님이요 의인 자체가 천국이요 천국 자체가 에덴동산이요 에덴동산이 바로 의인의 마음인고로, 의인이 없으니까 에덴동산이 회복 안 된 것이요 에덴동산이 회복 안 되었으니까 종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세주께서 세계를 향하여 다니면서 왜 "이 세상에 학문도 없었다. 이 세상에 종교도 없었다."고 외치고 있는지 그 정당한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학문이 많은데 학문이 없었다고 하는 근거는 이 세상의 학문은 마귀의 학문이요 비진리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세주께서 만민들에게 말씀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구세주가 마귀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귀의 말로 전달하고 있는고로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구세주가 말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은혜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깨우쳐지는 면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로 깨우치는 면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마귀의 말로 표현하는 부분밖에는 알아들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말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백분지 일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뭘 알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부음이 깨닫게 해준다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름부음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령을 못 받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면 죽지 않는 영생체로 화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구세주께서 논하고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되고 사람이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학설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로 표현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수준 이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인고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알아내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수작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되는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면 죽지 않는 영생체로 화하게 된다."는 구세주의 영생학문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생명의 실체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피가 곧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피로써 몸의 세포가 구성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위시한 각 생명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하고 갈망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요 궁극적 소망입니다. 때문에 모든 종교와 학문이 궁극적인 목표는 죽지 않는 영생(永生)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종교와 학문이라는 것이 영생은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죽어 천당가고 극락간다고 가르쳐온 것은 사망의 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망의 신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류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사망의 신에 의해서 철저히 가려져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永生)이란 사망(死亡)의 반대 단어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그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彌勒佛出世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4〉,〈5〉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4〉

부처(佛)의 정의를 말함

그래서 열반경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반열반경 16권 범행품(梵行品)제3
云何爲佛 佛者名覺 旣自覺悟復能覺也
운하위불 불자명각 기자각오부능각야
善男子 譬如有人覺知 有賊賊無能爲菩薩摩訶薩
선남자 비여유인각지 유적적무능위보살마하살
能覺一切無量煩惱 능각일체무량번뇌
旣覺了已令諸煩惱無所能爲是故名佛
기각요이영제번뇌무소능위시고명불
以是覺故不生不老不病不死 是故名佛
이시각고불생불노불병불사 시고명불

왜 부처(佛)라고 하는가? 부처(佛)는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이니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마치 도둑이 주인이 있는 것을 알면 당황하여 어찌할 수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한량없는 온갖 번뇌를 깨달았으며 깨달은 뒤에는 번뇌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게 하므로 부처(佛)라고 하며, 깨달았으므로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으므로 부처(佛)라고 하느니라.

[해] 위와 같이 각 경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살마하살은 곧 미래불(未來佛)인 미륵불(彌勒佛)에 대한 말씀이며, 일체중생을 모두 번뇌의 뿌리가 하나도 남음이 없는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하신다는 말씀도 미래 세상인 지금의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법신불(法身佛)인 미륵불(彌勒佛)이 출현하실 때에 제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설: 현 세상의 열반은 성문(聲聞)은 소열반(小涅槃), 연각(緣覺)은 중열반(中涅槃)으로 번뇌의 뿌리가 남아 있는 상태를 유여열반(有餘涅槃)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완전한 열반이 아닌 것입니다.

무여열반(無餘涅槃)은 번뇌가 단 한점도 없는 완전한 보살이나 부처가 얻는 대열반(大涅槃)과 대반열반(大般涅槃)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이 없는(無量無邊)의 중생들이 모두 제도가 되어야 비로서 무여열반인 번뇌가 모두 사라져 없어진 세상인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지금이나) 중생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화경(法華經)의 방편품(方便品)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묘법연화경 卷 第一 방편품(方便品)第 2
十方佛土中 唯有一乘法 無二亦無三 諸佛方便說
십방불토중 유유일승법 무이역무삼 제불방편설
但以假名字 引導於衆生 佛說智慧故
단이가명자 인도어중생 불설지혜고
諸佛出於世 唯此一事實 餘二則非眞 從不二小乘
제불출어세 유차일사실 여이즉비진 종불이소승
濟度於衆生 佛自在大乘 如其所得法 定慧力莊嚴
제도어중생 불자재대승 여기소득법 정혜력장엄
以此度衆生 自證無上道 大乘平等法 若以小乘化
이차도중생 자증무상도 대승평등법 약이소승화
乃至於一人 我則墮 貪 此則爲不可
내지어일인 아즉타간탐 차측위불가

시방의 부처님의 땅 가운데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으며 둘(二乘)도 없고 또한 셋(三乘)도 없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외되느니라.

다만, 거짓(된 부처님들의) 이름으로써 중생을 인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로 말씀한 것이며, 모든 부처가 세상에 나왔을 때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진실한 것이지 나머지 둘(二乘과 三乘의 小乘法)은 진실함이 아닌 것이니라.

끝내 소승으로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므로 부처는 대승의 진리로 자재하며 그 법을 얻은바 정혜력(定慧力)으로 장엄하여, 이로써 중생을 제도하시되 스스로 위없는 도 즉 대승의 평등법(平等法)을 증득하신 것이니라.

만약 소승 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교화한다면 나는(석존 스스로도)인색하고 탐(慳貪)하는 것에 떨어지므로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라.

[해] 이 글 역시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석존께서 하신 말씀이시지만 참으로 대단한 근기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여 년간을 석존 스스로 대승 즉 성불을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시다가 이제야 대승의 법문을 말씀하시겠다니 대단한 근기시고, 또 스스로 석존께서는 소승의 법으로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시니 진실한 교법(教法)입니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5〉

미륵부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 불자들은 지금 수천 년간 고정관념에 얽매여 돌부처나 쇠부처 내지는 나무부처의 형상과 또는 현재의 절간에 스님들의 모습만 보아 왔기 때문에 부처가 보통 사람들의 재가 불자의 모습처럼 생겼다면 얼른 그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는 다음의 경전에서도 자세하게 미륵부처님에 대하여 비교적 세밀하면서도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증일아함경 제 26권 등견품(等見品)제 34 (3)
諸佛世尊皆出人間 非由天而得也
제불세존개출인간 비유천이득야

모든 부처님과 세존은 모두 인간에서 나왔지 하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설: 부처는 부처의 상징인 32가지의 훌륭한 모양과 80가지의 좋은 모습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는 부처의 상징을 두루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차지하고서도 진실로 감로(甘露)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감로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감로라는 것이 식(識)이 맑은 분이라면 빛으로 보이는데 이 감로의 빛이 마치 사람 키의 한 길 이상 솟아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도를 이룬 이의 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징이 없다면 부처가 아니라고 석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어느 누구인가 한 번 찾아보기로 하지요.

우선 미륵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돌부처의 형상일까요? 인간의 모습이라면 스님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재가 불자의 모습일까요? 경전에는 돌부처나 쇠부처 내지는 나무부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 또는 쇠붙이의 불상이 불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사람이 부처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인 보살이 열심히 보살행을 닦아 불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이지 다른 동물과 식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스님들과 일반 재가자들 중 어디서 나타나실까요?

여기 금강경의 26분에서도 "전륜성왕이 곧 여래다."라고 했듯이 석존은 재가 불자들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明鍾